



신라 시조 박혁거세와 왕비 알영부인이 모셔져 있는 제당 송덕전(사진 위)과 그들이 묻힌 오릉(사진 아래). 박혁거세의 죽음에 얽힌 설화는 인도 개벽 설화(리그베다)와 닮았다. 이는 박혁거세 설화가 불교 도입 이후 각색됐음을 의미한다.



송덕전 안의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비(碑). 조선 시대의 왕들도 혁거세의 제향을 지냈다.



3월 불적답사에 참가자들이 천관사지를 둘러보고 있다.



봄을 맞은 남산 불적답사에는 7살의 어린이도 참가했다.

혁거세 시신은 왜 다섯 갈래로 내려왔을까?

남산에서 만난 신라의 전설들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 새벽 기차는 묘한 매력을 가진다. 동이 터 오르는 여명의 여적을 보며 스스로 '깨어있음'을 느끼는 것은 새벽 기차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호사다.

새벽 기차를 타고 도착한 경주. '봄은 남쪽에서 온다'고 했던가. 3월 초입 경주는 꽃샘추위의 여파가 남아 있었지만, 봄의 길목에 있는 것은 명확했다. 경주의 주산(主山) 남산도 봄기운이 만연했다.

이번 경주 불적 답사의 주제는 신라의 전설이다. 남산의 아스라한 봄 내음을 따라 신라인들의 전설이 서린 곳곳을 돌았다.

남산서 나고 묻힌 시조 혁거세

경주 남산은 신라의 처음을 상징한다.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곳이 남산 서쪽 기슭 우거진 소나무 숲 속에 있는 나정이다. 진한의 6부춘장이 신라를 건국하기 위해 회의를 한 곳도 나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산 인근에 혁거세와 부인 알영비,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이 잠든 오릉(五陵)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유일 것이다. 오릉 옆에는 시조 혁거세를 기리기 위한 사당인 송덕전이 있다. 송덕전은 신라가 아닌 조선 세종 11년에 세워진 것으로 사당 앞에는 하마비가 놓여 있다. 그런데 하마비에 새겨진 문구가 독특하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라.(大小人圖皆下馬)' 조선의 왕 역시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시조에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하려 했음을 알 수 있는 대

목이다.

송덕전 북편에는 혁거세의 비(妃)인 알영부인이 태어난 알영정이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알영은 혁거세의 즉위 5년(BC 53) 정월 한 우물가에 계룡(鷄龍)이 나타나 오른쪽 계드랑이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모습이 고와 노파가 같았다. 그 후 아이의 행실이 착해 13세가 되던 해에 혁거세의 왕비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현재 알영정은 석재 3매로 덮여 있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고, 주위에는 팔각형 석재와 확돌, 초석 등이 남아 있다.

혁거세 설화와 세계 시조 설화의 유사점

알영정의 대나무 숲길을 걸어 나오면 시조와 부인, 신라 초기 세명의 왕을 모신 오릉이 나온다. 오릉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은 혁거세 죽을 설화를 살펴 봐야 한다. 이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잘 소개돼 있다. 내용에 따르면 혁거세가 나라를 다스린지 61년 만에 하늘로 승천했고, 7일 뒤에 유체가 다섯 갈래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이를 모아 장사를 지내려 했으나 큰 뱀이 나타나 방해해 해 각각 나눠 담습사 북편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후 사람들은 이 능호를 오릉이나 사릉(蛇陵)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같은 탄생과 죽음의 사변설화(蛇變說話)는 신라에만 있는 독특한 설화가 아니라 게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의 설명이다. 인도의 개벽 설화인 <리그베다> 경전에서도 '변재천녀가 죽어 승천한 지 7일만에 유체가 다섯으로 갈라져 내려왔고, 이를 모으고자 했으나 큰 뱀의 방해로 오릉에 나눠 묻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경현 경북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박혁거세와 <리그베다>의 변재천녀 설화의 유사점을 주목

했습니다. 그는 박혁거세의 설화가 불교의 유입 후 <리그베다> 변재천녀의 '승천 후 유체낙지설화'와 결부돼 유행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사체 분장 역시 이집트 오시리스 신화에서도 발견돼 곡물 재배 민족에서 발생하는 '파종재생'의 모티브로 파악됩니다."

설화 속 사찰 담습사, 천관사

혁거세의 장례지 북편에는 담습사가 있었다고 전

신라 시조 혁거세의 죽음 설화

인도 '리그베다'와 유사점 많아

불교 유입 후 각색 가능성 커

옛 전불칠처 가람인 담습사

말목 자른 김유신의 천관사

흔적만 남아 무상함 일깨워

해진다. 현재로 따지면 오릉 주차장 인근으로 추정된다. 이곳에 사찰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유는 <삼국유사>에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오릉 주위에서 다량의 와전유가 발굴됐기 때문이다.

이 담습사도 당시 신라인들에게는 중요한 사찰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수도 서라벌 안에는 과거 일곱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사

찰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데 그 중 7번 째 사찰이 담습사였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이 같은 '전불칠처' 가람을 통해 신라인들의 불심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국유사>에는 서라벌의 전불칠처 가람을 흥륜사(현 경주공고), 영흥사, 황룡사, 분황사, 영묘사, 사천왕사, 담습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신라인들이 신라를 석가세존이 태어난 인도보다 못지않은 불교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칠불이 경주 곳곳에 화려할 정도로 그들은 신라가 가장 훌륭하게 불법을 펼치고 불국토를 이룩할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다."

오릉 동편으로 300m를 걸어가면 천관사지를 만날 수 있다. 현재도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천관사지는 삼국통일의 1등 공신인 김유신과의 사랑을 증기 위해 자결한 기생 천관(天官)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어진 사찰로 알려졌다.

현재 천관사지는 건물지 7동과 탑, 문, 석등, 우물 등이 확인됐다. 특이한 점은 탑이 금당과 남북으로 동일한 축이 아닌 문지와 남쪽 건물지 사이에 조영돼 있다는 점이다.

남산 인근에서 만난 설화 속 사찰들 모두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터만 남아 세월의 무상함만 더하고 있다.

과거와 현대, 그 접점의 유적들

천관사 옆을 따라 오르면 남산 최북단인 도당산에 남아 있는 신라시대 석관인 도당산 토성을 만날 수 있다. 현재는 경주-포항 간 산업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산 토성과 인접해 있는 형국이다. <삼국사기>에는 '도당'은 '남당'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남당'은 왕

과 각부 관리가 집무를 보던 곳으로 해석되거나 즉위 의례를 했던 신궁으로 보기도 한다.

도당산 아래로 내려와 20여 분을 걸으면 복원이 한창인 일정교와 월정교를 만날 수 있다. 월정교는 신라 제35대 경덕왕 19년(760년)에 축조돼 고려 제25대 충렬왕 6년(1280)에 중수한 사실이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으며 그 후 조선시대에 편찬된 <동경잡기>에는 현재는 유지(遺址)만 남아있다고 해 조선 현종 10년(1669)경에는 이미 교량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월정교는 교각위에 목조 누각이 얹힌 형태인 누교 형태로 총사업비 332억 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복원할 계획이다.

월정교 너머에는 새로 정비된 교통 마을이 있다. 범주로도 유명한 교동은 이제는 민속체험관으로 그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연휴를 맞은 행락객들의 차량 행렬도 끊이지 않았다. 불국토 남산 아래의 접경에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어지러이 공존하고 있다.

정일근 시인은 '경주 남산'이란 시에서 남산을 '신라인의 마음을 싣고 흘러가는 한적의 배'라고 표현했다. 남산에서 만난 설화마저도 신라인들의 불심을 가지고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복원될 월정교에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움을 만난 것은 과거와 현재의 접점에서 흐르는 내 마음의 배가 어지러기 때문일까.

경주 남산=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4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일정

- 주제 : 신라인들의 불상 조성 방법
- 일시 : 4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의장 석무겸 석만월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범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초오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혜광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마산총무원장 석범경
전남총무원장 석범진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중앙총회
총회의장 석덕오
부의장 석월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의장 석범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의장 석범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의장 석대명
부의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범오

충분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총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지부 제2총무원 혜광사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행자모집 중

총무소 051)893-3346
학장(直) 010-3564-6604 현우 법오
부산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정사(백양대로 50-1호)

◆ 입종 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법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충분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증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신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응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중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충분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칠 나날 사찰 및 종도모집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